

서용스님과의 만남-그림 인터뷰

“걸림없는 일상이 조사선”



◀ 지선·일수·종림·성본·종묵·해묵·금강·원호스님 등이 질문하고 있다.



▶ 왼쪽부터 김주선·허인섭 박구원, 김지건 역사, 심재홍 교수, 전병재 교수.

깨달고 나면 완성된 자리입니까

“무한히 투과하는 작용은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무한히 형성하는 것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서용: 간화선이 단조로운 수행체계라고 하지만 단조로우면서도 일체를 통하는 깨달음의 경지는 차원이 높습니다. 또 깨달음의 경지는 차원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경동하므로 올바르게 의심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정진하면 됩니다.

- 돈수의 입장인지 점수의 입장인지에 따라 행동지침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선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요?

△서용: 돈오점수는 보조스님이 주장한 것으로, 돈오 그자체가 지혜에 의해 깨달은 것으로, 번뇌망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점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돈오돈수는 의식과 무의식을 투과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것이므로 번뇌망상이 없는 자리입니다.

- 사념처 수행법과 조사선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서용: 화두는 부처님이 깨달은 그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고 사념처는 구경의 깨달음까지 가기 위한 수행법이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참사람(眞人)에 관해

- 근원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입장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참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사람으로서 원용무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조사선입니까?

△서용: 참사람의 의미를 자유자재하다는 뜻으로 정의했으니 이것을 의식차원에서 '아트만'이라고 망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선입견을 갖고 받아들여 오해하면 안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바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진인'이라고 하는 이상적 인격이나 훌륭한 사람의 모습은 조사선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자에도 그와 비슷한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서산대사는 '불교만이 훌륭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며 유·불·선 3교가 모두 훌륭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용: 진인이라는 말은 여러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차원은 모두 다르다고 봅니다. 다른 분야에서 말하는 진인은 무의식도 투과하지 않은 진인입니다. 말은 같아도 내용은 틀립니다.

●염불 수행에 대해

- 참선을 하지않고 염불만 하더라도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염불과 참선을 겸해서 해야합니까. 염불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용: 염불은 일반 대중이 알기 쉽도록 하기위한 방편입니다. 불교에는 방편이 많습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위해 쉬운 길을 방편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선을 어렵게 투철하게 수행해 모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방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용 스님의 수행에 대해

- 언제 확철대오하셨습니까?

△서용: 50살 때 쯤입니다. 백양사에 있을 때였는데 어느날 점심 무렵 물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 확철대오했다는 판단이 스스로 컸는지 확인받은 것입니까. 선지식이나 법거

량을 통해 확인받은 것은 없습니까.

△서용: 스스로 기연에 따라 확철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체험이기 때문에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스님의 행장이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깨침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시고 싶어요.

△서용: 내가 견성치 못했으면 오늘 여기서 설파할 수 없어요. 분명히 듣고 있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

- 수행과정을 회고해 볼 때 가장 아슬아슬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서용: 총무원에 있을 때입니다. 행정 책임을 수행하다보니 뜻대로 되지도 않고 책임은 나에게 돌아오니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일이 수행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요.

- 정화 당시부터 종조 문제로 시비가 있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님과 절친한 한국스님과 성철스님은 종조를 누구로 보십니까?

△서용: 우리 셋은 모두 태고 보우스님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 '팔지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도 색신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견성을 하면 색신은 완전히 끊어집니까?

△서용: 견성을 하면 색신은 이미 색신이 아닙니다.

- 실제로 참수행을 하다보면 생리적인 상으로 색신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그럴때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합니까?

△서용: 끝없이 정진하는 힘만이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선과 현대사회

- 스님께서는 선의 입장에서 보면 본래 모순과 대립이 없고 현실 그자체가 자비화돼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셨지만 현실은 빈부의 차이나 계급의 차이 등 문제가 있어 대립이 있고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 대립이 없다고 참선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사회 병폐는 어떻게 치유합니까

“참선을 통해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산다면

과학문명의 피해 사라져요”

△서용: 참선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비화함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부부와 자식, 형제들이 모두 의견이 맞아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병폐들은 어떻게 치유를 해야합니까?

△서용: 과학문명의 병폐는 인간이 과학문명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참선을 통해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산다면 과학문명의 피해는 사라집니다.

- 과학문명이 인류에 공헌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용: 과학문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는 과학문명이 아니라 결국 모두를 죽게 만드는 과학문명이 되었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 현대를 살아가며 생기는 스트레스, 컴플렉스 등 많은 고민들을 푸는 방법이 현재는 향락과 쾌락 밖에 없는 듯합니다. 스님께서 조사선의 높은 경지를 들어보임으로써 현대인들의 고통을 선을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용: 선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지만 서구에서는 이미 선이 크게 흥하고 있습니다. 공선을 통해 불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백양사=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기사원처 '른스님 수행한담'입니다.

나와 경전



63

대승본생심지관경



최성열  
조선대 교수·철학과

대학에 입학한 직후, 내 가슴에 와 닿았던 부처님 말씀은 '일체유심조'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수를 거쳐 후기 대학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지 일류를 향한 재수의 방편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니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을 수 밖에, 그런 내게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화염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를 때리시 키고 말았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다. 재수냐? 불교냐?의 기로에 서고

내주었다고 하였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 경이 중국에 전해진 것은 7세기 무렵(元和)년간(806~820)에 반야삼장 등 8인이 왕명에 의해 8권 13품으로 한역하였는데, 이 한역본은 현재 대정장(大正藏) 제3책에 수록되어 있다.

만 것이다. 램릿보다 더한 번민이 계속되었다. 궤도를 수정키로 한 것은 달포를 방황한 후였다. 그 날 이후 '일체유심조'는 번민이 아닌 불은(佛眼)으로 내 마음 속에 자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의 참 뜻을 이해한 것은 불과 5년 전이었다. 다섯 글자를 이해하는데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 셈이다. 시도 때도 없이

리는 출가하여 아란야에 머물 때 어떻게 심지(心地)를 관해야 망상을 없애고 불도를 성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경의 이름은 <대승본생심지관경>이라고 한 것은 이 경을 설할 때 여러 가지 본생설화와 비유를 곁들여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가위주의 수행을 권하고 있는 이 경의 중심사상은 경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심품(觀心品)'에

본생설화 비유로 심법 자세히 설명

화엄 반야 유마 등 대승사상 총망라

찾아오는 불참객들이 귀찮게만 여겨졌다. 그리하여 때로는 연구실 형광등을 소등한 채로, 또 어떤 때는 아예 문을 잠그고 컴퓨터 앞에 앉아 내 시간에 충실하였다. 성격적이지 아니라 그만큼 일이 바쁘고 밀린 일이 산더미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대승포진으로 강의 하고 뒤로 뒷전으로 미룬 채 2주일을 쉬어야 했다. 그리고 2년 후, 이번엔 강의 도중에 쓰러지는 일까지 생겼다. '이러다가 잘못 되는 것은 아닐까? 일체가 유심조라고 했는데...'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무리하지 말라는 무언의 충고인 것을, 그제야 편안한 마음으로 불참객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때 펼쳐든 것이 바로 <대승본생심지관경>이다. 10여년 전, 모 잡지사의 청탁으로 이 경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었다. '일체유심조'가 설해진 화엄은 물론 반야·유마·법화·열반 등 대승의 경전이 총망라된 이 경전으로 대승불교사상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경의 어제서문(御製序文)에는 당나라 고종(650~683) 때, 현재의 스리랑카인 사자국 왕이 법본(梵本)을 보

았다. "마음으로써 주인을 삼아라. 마음을 잘 관하면 해탈할 수 있다. 중생의 마음은 마치 대지와 같다. 오곡과 오과가 대지에서 생산되듯이 심법은 여래를 낳는다. 이러한 인연으로 삼계는 오직 마음이고, 마음을 이롭게 하는 지(地)라고 한다"며 심지를 관하는 법을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을 <본생심지관경> <심지관경>이라고 약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이 경의 중심사상은 이른바 부모·중생·국왕·삼보의 네 가지 은혜와 보은이 설해진 '사은품'과 '보은품'에 있다. <대보적경>이나 <정법염처경>에서도 사은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이 경에서처럼 그 체계나 수행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나아가 미륵신앙이나 대승계를 설하여 출가자 본인의 자제를 밀교적 수행법으로까지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보은은 무상보리의 마음을 내어 불도에 들고 삼보의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 경을 설한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갈 길을 밝혀준 <대승본생심지관경>. 이 경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아나운서가 수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분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10~10:00  
13:25~14:15  
22:00~22:50  
매주 일요일  
18:40~19: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인제비도 믿음직한 불자 아니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거늘은 너무 이따금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놔주세요.  
기속속은 시원해지고 이계는 오싹해집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